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귀착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신윤식

하늘을 바라본다.
분주한 삶과 함께 잊고 지낸 하늘
그 넓고 넓은 공간이
불 때마다 다른 색으로 변한다.

어느 날은 파랗다가 하얗게 되고
또 어느 날은 하얗다가
금방 잿빛 구름으로 메워지더니
후드득 빗줄기를 쏟아 붓는다.
이 무슨 변덕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손사래 친다.

삶이 항상 좋을 수만 없다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겠지만
한결 같지 않다는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니
고통도 고난도 그 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아
기쁨과 슬픔이 교차할 때 마다
깊은 한숨으로 시간 매우지 말고
하늘의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10.6

발행호수 제21권 40호

본문의 비유는 여러 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 있는 것으로 칭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적

하고 책망하여 고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러한 상식과는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이 낯설게 다가오면서 혼란스러워 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의 주인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옳지 않은 행동을 오히려 지혜 있다고 칭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본문에는 우리의 정서로는 해석할 수 없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과 11절의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구절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것은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자신이 불의해지지 않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것을 가까이 하면 나 또한 불의해 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원칙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5장에 보면 이 원칙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 불의한 것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수군거리며 비난한 것도 그러한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칭찬 받는 믿음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의한 일은 행하지 않고 항상 의로운 행동만 해야 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종교적인 상식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일오전설교
눅 16:1-13

칭찬받은 불의

버려야 하는 것은 불의한 것을 멀리 하여 깨끗한 신자 되는 것이 신앙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고방식을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계시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15장의 비유의 내용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그들과 동일한 원칙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비유에는 부자와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자였습니다. 아마 주인의 소유가 제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끼지 않고 헤프게 허비한 것 같습니다. 주인으로서 이런 청지기를 계속 그 자리에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 해고를 통보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청지기는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라고 한 것처럼 생계를 위해 마땅히 할 일이 없었던 청지기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나 생계가 곤란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영접하여 도와줄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지기가 생각해 낸 방법은 주인의 재산을 더 축내는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기름 백말을 빚진 자에게는 증서에 오십으로 쓰게 하고, 밀 백 석을 빚진 자에게는 증서에 팔십으로 쓰게 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결국 주인에게 빚진 자들은 청지기로 인해서 큰 이익을 얻게 되지만 청지기는 분명 증서를 위조하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한 것이고 주인에게는 큰 손해를 입힌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고 칭찬합니다.

이 말을 문구대로 이해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술수를 부리고 불의한 방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보다 더 지혜롭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도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 동일하게 때로는 술수도 부리고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결국 불의를 선한 것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하신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일단 법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적인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청지기는 해고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위조하고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혔으니 지금의 법에 의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고 처벌을 받아야 할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결코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여 모두 허비해 버린 것은 아버지에 대해 완악하고 패역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만약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부모가 그 아들을 끌고 장로들에게 나아가 아들의 행위를 고하고 성읍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신 21:18-21). 이것을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완악하고 패역하며 방탕한 아들을 법적인 기준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에 불만을 드러낸 자가 만아들이었습니다. 만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법적인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법적인 기준에서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성한 자신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아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만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만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참된 신앙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만아들처럼 한 가지 잊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함입니다. 만아들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성실하게 일한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보상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본성이며 약함이라는 것을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으로 덮어 버린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으로 인해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행동이 옳지 못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주인의 소유에 손해를 끼친 행동에 대해서는 지혜롭다고 하며 칭찬을 하는 것입니까?

또 다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옳지 않은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습니다. 재산을 가

지고 집을 나가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해서 아버지의 집을 그 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청지기를 해고하면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해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라면 주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의한 방법이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는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청지기를 이용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의를 드러낸 그 청지기를 칭찬함으로써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한 자는 비판을 받고 선을 행한 자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모르는 것은 선으로 보이는 행동에 가려져 있어서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불의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지기는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신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소위 빛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낫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이 드러남으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은 무엇 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자신에게 재물이 모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말합니다. 즉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개의치 않고 영접해 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개의치 않고 영접해 주실 분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의 자신의 신세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영접해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자신이 주인에게 쫓겨날 불의한 청지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충성스러운 아들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친구가 되시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오로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주인의 손해에는 전혀 관심두지 않은 청지기의 불의,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불의함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불의한 나를 영접할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나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이기보다는 재물에 매인 것이 우리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떠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 본성은 늘 나의 생존 문제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재물로 살 궁리를 하고 살아가면서 사실상 재물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불의함을 볼 것을 촉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때입니다.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죽지 않습니다. 심판이 마땅한 불의한 자로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다만 불의한 자라는 그것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라면 과연 누가 여러분께 진정으로 필요한 분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청지기가 옳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옳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실

한 청지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해고 통지 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소위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해고 통지를 받아들였고 해고된 후의 자기 앞날을 위해 친구를 사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 자에게 참된 것을 맡긴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그에게 참된 것, 하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신앙생활의 의미와 목표를 주일을 잘 지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삶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해고 통지를 받은 불의한 자임을 알고 그런 자신을 영접해 줄 친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사귀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나를 영접해 줄 친구를 사귀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늘 실감하면서 예수님을 사귀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본 문은 형제가 서로 화목한 가정의 아름다움과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말씀을 곡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내용을 문구대로 이해하여 형제가 한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가정의 화목과 아

주일오우설교
시 133:1-3

연합의 의미

(137강 9.8일 설교)

롭다움이라고 한다면 요즘처럼 핵가족화 된 세태와는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 역시 교인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단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각기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부터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연합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미 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 증거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악과를 먹은 책임은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 된 인간의 본성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심으로 인한 가인의 시기심은 아벨은 더 이상 가족으로, 형제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가족, 형제, 혈육이라는 관계에 있다고 해도 자신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비록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혈육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의 연합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생계를 위해서는 같은 교회의 교인이라고 해도 경쟁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경쟁에서 밀리면 어김없이 분노와 시기심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형제로 여기며 연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포부와 기대와 꿈을 모두 내려놓는다면 가능하다 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됨을 염두에 두고 시편 저자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저자는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노래합니다. 세상에는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흔히 미담이라고 하는 것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포함될 것입니다. 가령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한 일이라든지, ‘철가방 우수씨’ 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고아 출신으로 72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한 평 남짓한 고시원에 살고 5명의 저소득 어린이를 7년 동안 돕던 중국집 배달원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누구에게나 선하고 아름답다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로서는 감히 행할 수 없는 삶을 산 그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을 누가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다름

니다. 우리 눈에는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삶들이 정작 하나님께는 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노래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는 연합과 동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무지 나타낼 수 없는 연합과 동거이기에 만약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면 그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자는 연합과 동거로 인한 선하고 아름다움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넘쳐흐른다는 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 그 머리에 기름 붓는 일을 상기하게 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위임 받는 장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자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제사장 직분과 연결하여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사장은 단지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리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 누구도 온전히 그 역할을 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제사장은 예수님 한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벧전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성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제사장의 직분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며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즉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스스로를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형제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신 복에 신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관계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

제 관계인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것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노래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음으로 화목한 관계를 선택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연합과 동거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덕이 선택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자가 예수님을 알고 그런 노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 받는 것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내다봤고 그 역할에 담긴 선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몬의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 내림 같다’는 구절도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혈몬 산은 아주 높은 산으로 꼭대기에 있는 눈이 증발하여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에 이슬로 맺힌다고 합니다. 유다 땅에서 이슬은 곡식이 자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유다에게 혈몬 산은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 누구나 혈몬 산을 특별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특별하신 분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게 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분으로 바라보고 그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그 관계를 형제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관계로 모이는 신자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나로 인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신자입니다. 이러한 형제 관계로 모인다면 누군가가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만 마음을 집중하려고 할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 이런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관계에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영생의 복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 복을 노래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선하심과 자비가 증거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덕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써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은 유다에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의 유다 백성이라면 예레미야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고도 평안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음을 알았기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부탁에 대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겠다고 합니다(4절). 예전처럼 비록 그들에게 거북스러운 말씀이라고 해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6절)는 말입니다.

이들은 유다가 무너진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여호와께 물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했던 예전의 유다 백성에 비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변한 것처럼 보일 뿐 말씀에 대한 그들의 속셈은 여전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의 속셈은 복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에 남은 백성들의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더군다나

수요일설교
렘 42:1-6

중든지
중지 않든지

(93장 9.25일 설교)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라가 살해된 상황에서 바벨론 왕의 분노를 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다라를 살해한 이스마엘은 이미 암몬으로 도망쳤습니다. 요한도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피신하던 중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고 있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간들 상황이 나아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 길과 할 일을 여호와께 물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일 뿐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묻는 의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찾아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자기 문제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모든 일에 좋지 않은 것은 없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따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나 말씀은 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경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듣기에는 거북스러운 말씀이었지만 유다에게 좋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함으로 유다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에게 행하진 재앙과 심판 역시 유다 입장에서 엄청난 불행으로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자기중심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보다는 현재의 고통만 생각하면서 불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는 삶을 누리기 위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다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을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은 이들이 자신이 처한 형편에서 벗어나는 것에 뜻을 두지 않고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유다를 재앙과 고통으로 밀어 넣으신 뜻이 무엇인가?' 를 아는 일에 마음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부탁하는 기도도 하나

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것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자신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멸망으로 밀어 넣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없었음을 뜻합니다. 유다의 관심은 이방인과 동일하게 부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강대국인 주변의 이방 나라를 보면서 그들의 삶이 부러웠던 것이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였기에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사라진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할 수 없는 존귀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인들의 무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교인들도 늘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복과 은혜를 저울질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타인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세상의 것에 담겨져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로 여김 받게 하신 것이야말로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신 것이야말로 크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 안에 있는 자로서 주어진 은혜의 고마움에 붙들려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하며 힘쓰는 것으로 증거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신자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이며 신자가 누리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신자에게 불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 좋지 않은 말씀, 좋지 않은 일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안으로 인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6장

교 독 : 88(세례)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315장

성 경 : 눅 16:1-13

말 씬 : 칭찬받은 불의(79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80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2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42장

기 도 : 임수희 집사

찬 송 : 290장

성 경 : 시 137:1-9

말 씬 : 바벨론에 앉아서(141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79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95강)

■ 교회소식 ■

1.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2. 재건동부노회 연합 체육대회
일시 : 10월 9일(수) 오전 11시
장소 : 수성패밀리파크 공원
(우천시에는 장소 변경됩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송재관 집사

이단 51

애천교회의 창시자인 정명석(JMS)은 1945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뜻을 같이한 친구와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기도원 생활을 했다고 한다. 주로 용문산 기도원에 오래 있으면서 기도생활과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공부에 몰두하는 등 20여년을 거의 산에서 지내다시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통일교에 입교하게 된다. 통일교 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던 정명석은 얼마 후 통일교 기관의 하나인 '국제승공연합'의 강사 요원으로 발탁이 되어 약 2년간 활동하게 되는데 그것은 1966년에 군에 입대하여 2차례에 걸쳐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년에 전역한 그의 군경험이 바탕이 된 것 같다.

그 후 정명석은 75년에 문선명의 사명은 끝났고 자신의 사명이 시작되었다고 공언하면서 1978년에 통일교를 탈퇴하여 몇 사람의 추종자와 함께 1980년 2월에 애천선교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자신을 섭리사, 또는 선생님으로 칭하면서 주로 청년들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가를 중심으로 포교에 집중했으며 대학교 내에 동아리 조직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세가 확장된다. 그리고 1983년에 예수교대한감리회 애천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국제크리스찬연합으로 개칭하여 활동하다가 1999년부터 기독교복음선교회(CGM)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명석은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표절한 '30단계'라는 교리를 만들어 그것을 이 시대를 위한 새 진리라고 하면서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신도들에게는 자신을 예수의 영이 재림 부활하여 내재한 이 시대의 중심인물로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한다.

이들의 교리를 보면 먼저 성경에 대해서는 "기성교회는 성경을 시대성이나 과학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 교리적으로만 해석하는 등 성경을 잘못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는 성경을 풍유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한 예를 들면 "오병이어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며 12광주리에 부스러기가 남았다는 것은 12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전한 말씀 외에 부스러기 같은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점이다.

또한 그는 유대교를 영적인 실패자라고 하고 신약시대는 성령이 실패하였으며 현재의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를 바 없는 영적인 실패자기에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다며 교회를 매도하는 한편, 정명석 자신이 요시아 왕 같이 하나님께 보낸 자이므로 기독교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면서 대부분 이단들이 기존교회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교회를 비난하기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대 교회도 분명 성경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단체를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말씀의 시각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말씀의 시각에서 교회를 비난한다면 그 대상에는 자신 또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에 있어서도 해괴한 주장을 하는데 그는 30단계 중 영계론이라는 부분에서 "성부 성자 성신은 각위로서 하나가 아니다. 삼위가 일체라면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다는 말인가?"라는 이상한 논리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삼위는 아버지(성부), 어머니(성신), 아들(성자)로 인간의 가정 관계와 같다"고 한다.